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신 행 우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4요인 음주동기 모형과 보다 간명한 대안 모형들의 측정 부합도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음주동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통해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처 동기는 음주 정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주 정도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음주문제를 잘 예언해 주었으며, 특히 행동상의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한편 사교 동기는 음주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으며, 다만 음주 정도를 통한 매개 효과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음주동기는 음주행동과 가장 근접해 있는 선행 변인으로서 음주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Cox와 Klinger(1988)는 비록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보다 먼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음주동기를 거쳐서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음주동기는 음주에 이르는 최종의 공통 경로라고 하였다.

음주행동을 동기이론의 틀로 설명하려고 하는 음주동기의 모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째, 음주동기의 모형들은 모두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주장한다. 둘째, 음주동기의 모형들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이든, “서로 다른 욕구에 의해 동

기화된 음주행동은 독특한 형태의 선행 요인들과 결과들을 가진다”는 가정을 공유한다(Cooper, 1994). 그래서 개인의 음주에 깔려있는 동기들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들에서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은지, 얼마나 많이 마실 것 같은지, 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최근에 Cooper 등(1995)은 음주동기에 따라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도 다르고 서로 다른 음주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음주의 결과도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음주동기로 음주행동을 설명하려는 음주의 동기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조

절하려는 욕구 때문이며, 대처 동기와 고양 동기 각각은 서로 다른 독특한 선행 요인들과 결과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음주행동 들은 현상학적으로 서로 다른 독특한 행동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사회적/정서적 고양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정서 상태는 고양 동기의 고유한 선행 요인들이며, 긴장감소에 대한 기대, 부정적인 정서 상태 및 회피적 대처 양식은 대처 동기의 독특한 선행 요인들임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결과를 얻었다.

이보다 앞서 Cox와 Klinger(1988)는 음주에 이르는 최종 공통 경로는 동기적이며, 한 사람의 음주 동기는 그 사람의 여러 생활영역에 존재하는 유인자극(incentive) 및 이들 유인자극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제안한 음주의 동기적 모형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생화학적 반응성, 성격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음주로부터 얻은 과거의 강화 같은 역사적 요인들(historical factors)과 상황적 요소들 및 현재의 긍정적·부정적 유인자극과 같은 현재의 요인들(current factors) 그리고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cognitive mediating events) 등이 술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들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Cooper 등(1995)의 연구를 제외하면, 음주 동기의 선행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음주동기의 결과 즉, 각각의 음주동기와 음주행동 및 음주 결과 간의 변별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음주동기와 음주행동 및 음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던 여러 연구들(박영숙 등, 1995; Cooper, 1994; Cooper 등, 1988, 1992, 1995; Cutter와 O'Farrel, 1984; Farbor 등, 1980)에서 대처 동기는 음주의 정도나 음주문제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또한 대처 동기는 다른 음주동기들에 비해 음주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예

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음주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Cooper, 1994; Cooper 등, 1988, 1992). 그리고 Farbor 등(1980)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 중 93%가 대처 음주자로 분류되었다.

반면 사교 동기는 음주량 및 음주 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음주 정도의 변산에 대한 고유 설명량은 1%도 채 안되었다. 그리고 음주문제의 정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1994; Cooper 등, 1992).

한편 Cooper 등(1992, 1995)과 Cooper(1994)의 연구에서, 음주동기들 중 고양 동기는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또한 고양 동기는 대처 동기와는 독립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에 대한 지수들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었다. 하지만 음주 수준을 통제한 후에는 음주문제에 대한 예언력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고양 동기는 음주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음주문제의 정도에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cCarty와 Kaye(1984)는 대학생들의 경우, 대처 동기보다는 고양 동기가 잠재적인 알코올 남용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조 동기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Cooper(1994)의 연구에서 동조 동기는 음주량 및 음주 빈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조 동기가 음주 정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음주문제의 정도와는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이런 음주문제와의 관계는 음주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에서는 음주동기들 각각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은 음주행동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음주에 대한 심리적 동기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음주동기와 음주 정도,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결과들과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음주 양태 등을 고려하여, 음주동기와 음주 정도 및 음주 문제 간의 관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처 동기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관계는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회피적 대처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다지 적응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처 동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대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야 음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부정적 정서(예를 들면, 분노와 같은) 그 자체로 인해 자칫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폭음을 할 수 있으므로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대개 대처 동기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또한 음주자 주위에서 음주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폭음과 음주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언뜻 보기기에 사교 동기는 그 이름이 지칭하는 것처럼, 사교에 도움이 될 정도로 술을 적당량만 마시고 음주문제와도 관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교 동기는 사교 및 친선의 목적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므로, 만일 과음을 하고 음주문제들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해치는 등 원래의 음주 목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서구에서는 위에서 개관했던 것과 같이, 사교 동기에 의한 음주가 음주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사교 동기와 음주 정도 및 음주

문제의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자서 술 마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이고, 거의 항상 둘 이상의 사람들이 술자리에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음주에 어느 정도는 사교의 동기가 깔려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속에 쌓인 감정의 응어리도 술을 한 잔 해야 쉽게 풀 수 있고, 또 술에 취해야만 서로 속마음을 드러내 놓을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고 믿는 등 술을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율적인 수단, 사교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더불어 술 취한 후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숙 등(1995)은 한국인들은 집단 결속을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의 음주 행동이나 업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관계에서의 음주행동이 모두 무절제한 경향이 있어, 음주 상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음주 절제 행동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교 동기가 음주량이나 빈도 그리고 음주문제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 간에 강력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적 음주 상황이 주를 이루고, 이런 술자리에서는 의례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술을 권하고 강요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 상대방(특히 손윗사람)이 술을 권할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결례이므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 비해 동조 동기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에서는 동조 동기가 주로 청소년에게 중요한 음주 동기로 알려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조 동기의 정도가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모두 서구에 비해 높을 것이다. 동조 동기는 개념상 음주자가

술을 마시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 동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과음을 하는 일이 드물 것이므로, 동조 동기와 음주 정도는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비록 동조 동기에 의해 술을 마셨을 때 음주의 정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동조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는 신체적이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업무나 다른 생활상의 이유 때문에 자발적인 음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동조 동기가 음주문제의 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술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 술은 적은 양을 마셨을 때는 기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을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과 우울의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Russell과 Mehrabian, 1975; Cappell과 Greeley, 1987에서 재인용). 그래서 순수하게 고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면, 과음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결코 취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음주동기들 중 고양 동기가 음주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철저한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서구에서는 개인의 음주 여부의 결정이나 음주 정도가 타인보다는 주로 음주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고양 동기 자체가 음주의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양 동기가 음주 정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사교나 대처의 목적을 위한 음주가 두드러지고 주를 이루며, 스스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순수한 의미의 고양 동기는 다른 음주동기들에 비해 드물기 때문에 고양 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달리, 고양 동기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 사이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방 법

대상

조사 대상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285명과 일반인 남녀 250명이었다. 대학생은 서울 시내에 있는 2개 대학과 지방에 있는 4개 대학에서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생 응답자들과 대학원생들을 면접원으로 훈련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 535명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7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특성적 분포

	대학생(n=248)	일반인(n=214)	전체(n=462)
성별			
남	137명(55.2%)	157명(73.4%)	294명(63.6%)
여	126명(46.5%)	62명(27.7%)	168명(36.4%)
나이			
평균(SD)	20.8세(2.12)	33.6세(9.31)	26.8세(9.13)
-19세	77명(31.2%)	77명(16.7%)	
20-24세	155명(62.8%)	14명(6.6%)	169명(36.7%)
25-29세	15명(6.1%)	83명(39.0%)	98명(21.3%)
30세-		116명(54.5%)	116명(25.2%)

평가도구

음주동기

고양, 대처, 동조 및 사교의 네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와 한성열(1999)이 제작한 16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 음주동기 각각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고양동기가 .76, 대처동기는 .89, 동조동기는 .80 그리고 사교동기는 .85였다. 각각의 음주동기들은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들로 표현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이 가리키는 음주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5점 척도(0 : 전혀 마시지 않는다~5 : 거의 항상 마신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슬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거의 항상 술을 마신다' 쪽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들에서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서, 이들은 대처 동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음주 정도

1회 평균 주량과 음주 속도 그리고 음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문항들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① 평균 주량 : 1회 평균 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보통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12개의 선지(0 : 전혀 안 마심~11 : 5000cc 이상)를 주고 그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맥주의 양을 하나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그 양을 직접 적게 한 후, 나중에 연구자가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동등한 단위가 되게 변환하였다.

② 음주 속도 : 술을 마실 때 얼마나 빨리 마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 천천히 마신다(1)'에서 '아주 빨리 마신다(7)'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③ 음주 빈도 :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7점 척도(0 :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6 : 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음주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을 음주문제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학업이나 직무 수행의 장애, 폭행이나 시비, 가족과의 마찰, 대인관계의 문제 등을 음주문제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음주문제들은 주로 알코올 남용(혹은 문제성 음주)의 진단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며, 내성이나 금단 증상 같은 알코올 의존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만들기 위해, 음주문제 및 음주관련 경험을 다루었던 국내 연구들(김봉수 등, 1995; 김자성 등, 1989; 장환일과 전진숙, 1985; 정기일과 연병길, 1982; 최영희 등, 1989; 한광수 등, 1990)과 외국 연구들(Dawson 등, 1995; Higuchi 등, 1994; Kitchens, 1994; Midanik과 Clark, 1995; Schukit 등, 1995)을 개관하고, 여기에서 20개의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음주문제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문항 내용이 조사 대상자에게 알맞은 표현(예 : 대학생-공부, 일반인-일)이 되도록, 대학생용과 일반인용을 따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 : 전혀 그런 적이 없다~4 : 거의 항상 그렇다)로 만들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음주문제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은 6문항($\alpha = .88$), 행동상의 문제는 10문항($\alpha = .84$),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은 7문항($\alpha = .79$, 7문항 중 3문항은 행동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중복됨)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는 다시 말다툼(5문항)과 행동화(5문항)로 세분하고,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도 가족과의 마찰(4문항)과 대인관계 문제(3문항)로 세분하였다.

결 과

음주동기 요인 구조의 확인

신행우와 한성열(1999)은 Cox와 Klinger(1988, 1990)의 분류에 따라 고양, 대처, 동조 및 사교의 네 가지 요인으로 음주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4 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설정하고, 음주동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에서 음주동기들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음주동기들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어, 신행우와 한성열(1999)은 음주동기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교 회전이 아닌 사각 회전의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요인 분석 결과, 실제로 이들 음주동기 요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요인 복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은 수의 음주동기 요인을 가지고도 음주동기를 잘 설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를 살펴 보기 전에, 먼저 4요인 음주동기 모형과 보다 적은 수의 음주동기 요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대안 모형들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를 비교해 보았다.

1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음주동기를 한 개의 공통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른 대안 모형들의 부합도를 비교하는데 있어, 개개의 음주동기 문항들 간에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는 '영 모형(null model)'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2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음주동기에 깔려 있다고 가정한 두 가지의 차원(개인이 음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과 원천)에 따라, 각각 두 개의 서로 상관되어 있는 음주동기 요인으로 음주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2요인 음주동

기 모형은 음주자가 술을 마심으로써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정적 강화(고양 동기와 사교 동기)인가 부적 강화(대처 동기와 동조 동기)인가의 차원에 따라 음주동기를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모형(2요인 모형A)과 정적 강화인가 부적 강화인가와 상관없이 음주동기의 원천이 내부(고양 동기와 대처 동기)인가 외부(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인가의 차원에 따른 두 개의 요인으로 음주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2요인 모형B)을 설정하였다.

3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예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인 두 개의 요인을 하나로 묶고 나머지 두 개의 요인은 각각 별개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요인으로 음주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3요인 모형A는 고양 동기와 대처 동기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동조 동기, 사교 동기는 별개의 요인으로 가정한 모형이며, 3요인 모형B는 동조 동기와 사교 동기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 고양 동기, 대처 동기는 별개의 요인으로 생각하여 세 개의 요인으로 음주동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네 개의 서로 상관이 있는 음주동기들을 별개의 요인들로 가정한 음주동기 모형이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의 음주동기 모형들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를 비교함으로써,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다른 대안 모형들에 비해 자료에 대한 부합도가 더 우수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만일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대안 모형들에 비해 자료에 대한 부합도가 유의하게 더 낫지 않으면, 간명의 원칙(parsimony)에 따라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기각하고 보다 간단한 음주동기 모형을 선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LISREL Window 8.12a(Jöreskog과 Sörbom, 1993)를 이용하여 확증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입력 자료(input data)는 상관 자료(correlation matrix)였다(표 2).

표 2. 음주동기 문항들(16문항)의 상관 매트릭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0															
2	.233	1.000														
3	.411	.462	1.000													
4	.145	.337	.223	1.000												
5	.266	.370	.526	.251	1.000											
6	.474	.239	.449	.080	.425	1.000										
7	.412	.386	.674	.204	.589	.611	1.000									
8	.134	.420	.263	.745	.267	.090	.228	1.000								
9	.320	.423	.601	.204	.754	.391	.641	.251	1.000							
10	.171	.486	.292	.251	.299	.267	.335	.358	.362	1.000						
11	.130	.402	.238	.731	.244	.100	.199	.790	.224	.412	1.000					
12	.203	.531	.342	.281	.280	.260	.314	.392	.299	.585	.357	1.000				
13	.516	.356	.499	.094	.400	.516	.533	.109	.448	.330	.159	.355	1.000			
14	.135	.414	.261	.793	.280	.117	.213	.799	.229	.332	.762	.382	.192	1.000		
15	.078	.552	.369	.220	.372	.230	.353	.351	.378	.566	.370	.569	.292	.349	1.000	
16	.502	.262	.369	.083	.323	.491	.406	.094	.331	.274	.114	.268	.607	.136	.275	1.000

표 3. 음주동기에 대한 대안적 요인 모형들에 대한 부합도 평가

모 형	χ^2	df	GFI	AGFI	NNFI	NFI	CFI	RMR
1요인 모형	2220.43	104	0.532	0.388	0.438	0.503	0.513	0.155
2요인 모형A	1519.15	103	0.631	0.513	0.620	0.660	0.674	0.193
2요인 모형B	1076.53	103	0.722	0.633	0.739	0.759	0.776	0.133
3요인 모형A	894.51	101	0.759	0.675	0.783	0.800	0.817	0.128
3요인 모형B	563.74	101	0.852	0.801	0.873	0.874	0.893	0.061
4요인 모형	379.25	98	0.907	0.871	0.921	0.915	0.935	0.046

※ GFI = 기초 부합치, AGFI = 조정 부합치

NNFI = 비표준 부합치, NFI = 표준 부합치(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CFI = 비교부 합치(comparative fit index), RMR = 원소간 평균차이(standardized mean square residual)

2요인 모형A : 고양 + 사교(정적 강화)/대처 + 동조(부적 강화)

2요인 모형B : 고양 + 대처(내적 강화)/동조 + 사교(외적 강화)

3요인 모형A : 고양 + 대처/ 동조/ 사교

3요인 모형B : 동조 + 사교/ 고양/ 대처

표 3은 부합도 평가를 위한 지수(fit measure)들을 요약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합 지수들은 20가지 정도인데, 각 부합 지수는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는 가설화된 모형에 대하여 가장 큰 장점과 가장 작은 문제점을 가진 부합 지수를 골라서 모형의 검증에 사용해야 한다 (이순묵, 1990). Cliff(1983)도 여러 부합 지수들의 일관성이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로운 부합 지수라

고 지적하였다. 부합도 평가를 위한 지수들의 특징과 모형 부합도 판단의 준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 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는 주어진 모형이 자료의 변량/공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며, 보통은 0과 1사이에 있다. 표본 크기가 200 이상에서 GFI가 적어도 .90 이상이라면 모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정 부합치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GFI를 자유도에 대해 수정한 것으로, GFI보다는 작은 숫자가 산출된다. 비표준 부합치(NNFI: non-normed fit index)는 보통 0과 1 사이에 있으며, 드물게 1을 넘는 수도 있으나 보통 .90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부합치(NFI: normed fit index)도 Bentler와 Bonnet(1980)이 NNFI와 함께 제시한 지수로서, .90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으로 해석한다(이순복, 1990). 비교 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역시 .90 이상이면 부합도가 좋음을 나타낸다(Bentler와 Bonnet, 1980). 그리고 원소간 평균차이(RMR: root mean square residual)는 원래의 분석자료 매트릭스와 미지수들에 의해 재생산된 매트릭스 간에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극히 잘 맞는 모형이라면 RMR이 0에 가까울 것이고, 잘 안 맞는 모형일수록 점점 더 큰 양의 수가 된다. 분석 자료가 상관 자료이면 대략 .05 이하의 RMR을 보일 때 잘 맞는 모형으로 간주한다.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보면,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은 1요인 음주동기 모형보다 자료에 대한 부합도가 유의하게 더 좋으며 [$\chi^2(6) = 1841.2, p < .001$], 두 가지의 2요인 음주동기 모형들보다도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2요인 모형A: $\chi^2(5) = 1139.9, p < .001$; 2요인 모형B: $\chi^2(5) = 697.3, p < .001$]. 그리고 두 가지의 3요인 모형들에 비해서도 4요인 모형이 부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3요인 모형A: $\chi^2(3) = 515.3, p < .001$; 3요인 모형B: $\chi^2(3) = 184.5, p < .001$]. 더불어 부합 지수들을 살펴보면, 4요인 음주동기 모형만이 여러 부합지수들에서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값을 보이고 RMR도 .05 이하의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다른 대안 모형들에 비해 음주동기를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의 요인 계수와 다중상관자승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의 요인 계수와 다중상관자승치(SMC)

문 항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
	요인계수 SMC	요인계수 SMC	요인계수 SMC	요인계수 SMC
2.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728	0.53		
10.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730	0.53		
12.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753	0.57		
1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753	0.57		
4. 술풀 때		.849	0.72	
8. 스트레스를 받을 때		.895	0.80	
11. 화가 났을 때		.866	0.75	
14. 기분이 울적할 때		.900	0.81	
1.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649	0.42
6.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696	0.49
13. 술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804	0.65
16.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암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724	0.52
3.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761 0.58
5.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778 0.61
7.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813 0.66
9.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830 0.69

표 5. 음주동기 척도들의 평균,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및 척도간 상관

척 도	평 균	표준편차	α	음주동기 척도간 상관			
				1. 고양	2. 대처	3. 동조	4. 사교
1. 고양 동기	2.28(2.15)	.85(1.01)	.83(.88)	-	.48(.46)	.39(.16)	.51(.68)
2. 대처 동기	2.60(1.60)	1.08(.75)	.93(.84)	-	-	.16(.22)	.31(.46)
3. 동조 동기	2.48(1.38)	.77(.61)	.81(.85)	-	-	-	.61(.31)
4. 사교 동기	3.27(2.46)	.76(.98)	.87(.85)	-	-	-	-

* 모든 상관 계수는 $p < .001$ 에서 유의함. ()안은 Cooper(1994)의 결과임.
음주동기 평정 척도는 본 연구와 Cooper(1994)의 연구 둘 다 5점 척도로 동일함.

모든 문항들은 가정한 요인들에 유의한 요인계수를 보였다(t 값의 범위: 14.4~24.4, $ps < .001$).

표 5에는 음주동기 척도들의 평균과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 그리고 음주동기 척도들간의 상관을, 미국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Cooper(1994)의 연구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Cooper(1994)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음주동기들에서 더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음주동기들 중 사교 동기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세 가지 음주동기들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중 고양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Cooper(1995)의 연구에서는 정적 강화의 동기들 즉, 고양 동기와 사교 동기의 평균이 다른 두 가지 음주동기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상황들에서 음주를 하는 경향성이 미국에 비해 더 높으며, 미국의 경우 음주동기들 중에서 사교나 고양 목적의 음주가 다른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사교 동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양 동기는 가장 비중이 작음을 시사한다. 내적 합치도는 .81~.93의 범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ooper(1994)의 연구에서는 사교와 고양 동기간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교와 동조 동기 사이에 .61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음주동기들을 예언 변인으로 하고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중다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예언 변인인 음주동기들 간에 높은 상관이 있어 예언 변인들 간 다중 공선성을 살펴보았는데, 준거 변인들 각각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수와 음주문제 전체 및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1단계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고, 네 가지 음주동기들을 2단계에서 예언 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네 가지 음주동기들은 지난 3개 월 동안의 평균 주량, 음주 속도, 음주 빈도의 변산 중 약 16~2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들 중 사교 동기와 대처 동기는 음주 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지수들에서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특히 사교 동기는 음주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이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것과 사교 동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사교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술을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심을 시사한다. 그리고 평균 주량에 대해서는

표 6. 음주동기들을 예언 변인으로 한 음주관련 변인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1

	1 단계				2 단계				R^2	
	R^2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음주 정도										
평균 주량	.189***	.117*	.006	.143**	.031			.335***	.140	.183
음주 속도	.049***			.157***	.022	-.099*	.006	.325***	.136	.158
음주 빈도	.034***			.250***	.055			.397***	.219	.274
음주문제 전체	.029**			.307***	.154	.129*	.010	.217***	.075	.239
1. 직업·사회적 기능 손상	.071***			.202***	.035			.234***	.140	.187
2. 행동상의 문제	.027**			.320***	.150			.218***	.041	.191
① 말다툼	.017*			.307***	.151			.265***	.060	.211
② 행동화	.028**			.314***	.124	.138**	.012	.127**	.014	.138
3. 가족·대인관계 손상	.035***			.283***	.135			.274***	.065	.200
① 가족과 마찰	.048***			.224***	.044			.242***	.096	.140
② 대인관계 문제	.012			.293***	.135			.246***	.052	.187

* $p < .05$, ** $p < .01$, *** $p < .001$.

※ 1단계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ENTER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네 가지 음주동기를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했음.

고양 동기와 동조 동기도 적은 양이기는 하나 유의미한 설명량을 더해 주었으며, 동조 동기는 평균 주량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한편 음주문제 전체와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삼아 중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음주동기들은 음주문제 전체의 변산 중 약 24%를 설명해 주었으며,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들 각각의 변산 중 약 19~2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 변인인 음주동기들 각각의 베타값(beta weight)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처 동기와 사교 동기가 음주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는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음주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대처 동기가 보다 더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그런데 음주문제 하위 영역들에서는 문제 영역에 따라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행동상의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대처 동기가 사교 동기에 비해 더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에서는 대처 동기보다는 사교 동기가 보다 더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동조 동기는 평균 주량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으나, 음주문제 영역 중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예언하는데 유의미한 설명량을 더해 주는 정적 관계가 있는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에 미치는 음주동기의 영향이 전적으로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에 미치는 효과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음주문제 전체와 하위 영역들 각각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언 변인으로 1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을, 2단계에서 평균 주량, 음주 속도, 음주 빈도를 그리고 3단계에서 음주동기들을 투입한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표 7은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음주동기는 음주문제 전체의 변산 중 약 7%를 그리고 음주문제 하위 영역들 각각의 변산 중 약 4~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들

표 7. 음주동기들을 예언 변인으로 한 음주문제 영역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결과 2

	1 단계	2 단계	3 단계							
	R^2	R^2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			
			Beta	ΔR^2	Beta	ΔR^2	Beta	ΔR^2		
음주문제 전체	.028**	.243***	.220***	.043			.028		.071	
1. 직업·사회적 기능 손상	.071***	.223***	.113**	.010		.177***	.036		.046	
2. 행동상의 문제	.026**	.159***	.271***	.064		.193***	.012		.076	
① 말다툼	.016*	.176***	.257***	.058		.120**	.022		.080	
② 행동화	.027**	.098***	.281***	.064		.155***			.064	
3. 가족·대인관계 손상	.036***	.246***	.189***	.034		.090*		.107*	.007 .041	
① 가족과 마찰	.048***	.179***	.144**	.020				.100*	.007 .027	
② 대인관계 문제	.013	.222***	.210***	.038			.007		.045	

* $p < .05$, ** $p < .01$, *** $p < .001$.

※ 1단계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ENTER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평균 주량, 음주 속도, 음주 빈도를 ENTER 방식으로, 3단계에서는 네 가지 음주동기를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했음.

각각의 베타값을 살펴보면, 대처 동기는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또한 음주동기들 중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그리고 동조 동기도 음주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동조 동기는 특히 음주 문제 영역 중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동조 동기가 평균 주량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아주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조 동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 술을 적게 마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주동기로 술을 마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교 동기는 음주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고 음주문제 영역들 모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으나,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그 효과가 아주 약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면, 사교 동기는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음주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주로 간접적으로 음주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술을 자주 빨리 그

리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며,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는가에 따라 음주행동 뿐만 아니라 음주문제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의 이유 즉 음주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음주 행동을 이해하고 음주문제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신행우와 한성열(1999)은 Cox 와 Klinger(1988, 1990)의 분류에 따라, 대학생들로부터 얻은 언어보고 자료를 기초로 네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16문항)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음주동기 척도의 요인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들로도 음주동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 대안 모형들과 측정 모형 부합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음주동기 척도를 제작할 때 가정한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이 보다 간명한 다른 모형들에 비해 음주동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던 대처 동기와 사교 동기에 더해, 우리 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고양 동기와 동조 동기를 추가하는 것이 음주동기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것은 Cox와 Klinger(1988, 1990)의 음주동기 분류가 우리 나라에서도 타당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각의 음주동기와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독특한 관련성을 통해서도 이 같은 음주동기 분류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었다.

네 가지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주동기는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처 동기는 음주의 정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주의 정도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음주문제의 정도를 유의하게 예언해 주었다. 음주문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처 동기는 특별히 행동상의 문제와 대인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처를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꼭 자주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교 동기는 음주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음주문제 영역들 중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가족과의 마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이것은 사교 동기가 음주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이들 문제 영역들이 음주량이나 빈도 같은 음주 정도 그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면, 사교 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사교적인 목적으로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자주 빨리 그리고 많이 마심으로써 음주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대처를 위한 목적으로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는 달리 음주의

정도만 어느 정도 조절하면 거의 음주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동조 동기는 평균 주량과는 부적 관계가 있으면서도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가장 잘 예언해 주는 음주동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른 음주동기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을 때보다도 직업 및 사회적 기능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고양 동기의 경우에는 음주의 정도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으며, 음주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한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Cooper(1994)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서로 불일치한 양상도 나타났다. 대처 동기 및 동조 동기의 영향은 두 연구가 아주 유사했다. 하지만 고양 동기와 음주 정도의 관계 그리고 사교 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Cooper(1994)의 연구에서는 고양 동기가 음주 정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또한 사교 동기가 음주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음주문제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양 동기와 음주 정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거의 없었으며, 사교 동기는 음주문제를 예언하는 데 있어 유의한 설명량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몇몇 문제 영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결과는 서구와 우리나라의 음주 관습과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사교적 장면들에서는 의해 술판을 벌인다. 또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집단적인 음주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음주에는 사교의 동기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교 목적을 위한 음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음주가 집단적 음주의 양상을 따므로 개인 내부에서 생성된 순수한 의미의 기분 고양을 위한 음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고양 동기가 음주 정도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주량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술을 강권하며 모두들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취중 행동에 대해서는 음주자 본인도 면죄부를 받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매우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음주문제가 빈발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교 목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과음·폭음의 양상을 떠면서 자연스럽게 음주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진다.

반면 서구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문화에서는 음주의 여부나 음주의 정도가 타인보다는 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양 동기 같은 개인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의 동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결국 고양 동기가 음주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양 동기가 음주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 발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음주 및 음주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되는 만큼 또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기분 좋자고 술을 마셨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쉽게 용납되지 않으므로, 음주자가 나름대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음주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교적 장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음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또한 음주에 대한 통제

력이 손상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교 동기와 음주문제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Cooper(1994)의 연구에서는 사교 동기와 고양 동기의 평균이 다른 음주동기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또한 음주문제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이들 음주동기가 규범적(normative)인 것 같다고 해석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교 동기의 평균이 다른 음주동기들에 비해 현저히 높고 고양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나, 문화에 따라 술을 마시는 이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사교 동기가 음주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구에서와는 달리 사교 목적의 음주를 결코 전전하거나 규범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교를 위한 음주 장면에서도 과음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 취중 행동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사교 동기가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음주 정도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적 강화의 음주동기(대처 동기와 동조 동기)는 음주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정적 강화의 음주동기(고양 동기와 사교 동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동기의 방향성 차원에 따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결국 부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음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다지 적응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평상시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하고 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상시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분출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편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자칫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유형 무형의 압력에 못 이겨 술을 마시는 경우, 즉 동조 동기에 의해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음주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교 동기가 음주동기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구와는 달리 사교적 목적으로 하는 음주도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음주문제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과음을 부추기는 음주 관습 그 자체가 음주문제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음주문제 예방은 음주자 개인의 변화 노력만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이에 더해 음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와 전전한 음주문화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Oetting과 Beauvais, 1990)에서 음주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비교적 신뢰롭다고 지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고적 자기-보고 측정 방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반

응 편파(response bias)가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시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일정 기간의 일지(日誌)를 제공하여 매일매일 음주 정도와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시간 추적(time-line follow-back: TLFB) 측정법(Sobell 등, 1980; Evans와 Dunn, 1995)에서 재인용)을 사용하거나, 자기-보고 측정치에 더해 음주에 대한 동료의 평정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해 볼 만하다.

둘째, 비록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음주동기가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은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통해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망적 종단 연구(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알코올 중독의 치료뿐만 아니라 별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봉수·김경빈·이충경 (1995). 한국형 청소년 약물중독 선별검사표를 위한 예비연구(II). *신경정신의학*, 34(6), 1862-1874.
- 김용석 등 (1997). 성인 10명 중 3명꼴 알코올 중독 가능성. *동아일보*, 1월 7일.
- 김자성·이철원·김용식 (1989). 한국형 주정중독 선별검사 마련을 위한 예비적 연구(I). *신경정신의학*, 28(3), 500-507.
- 박영숙·표미자·김정선 (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

- 적 연구. *이화의대지*, 18(4), 399-409.
- 신행우 ·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계재 예정*.
- 이순록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장환일 · 전진숙 (1985). 한국에서 Michigan 주정의 존 선별검사의 적용에 대한 예비조사. *신경 정신의학*, 24(1), 46-53.
- 정기일 · 연병길 (1982). 입원된 주정의존증 환자와 그 부인의 정신증상. *신경정신의학*, 21(3), 487-492.
- 최영희 · 김 인 · 이병윤 (1989). 한국형 알콜리즘 선별검사를 위한 예비연구(I). *신경정신의학*, 28(4), 588-603.
- 한광수 · 이정국 · 김경빈 (1990). 한국형 알콜리즘 선별검사를 위한 예비연구(II). *신경정신의학*, 29(1), 168-177.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0.
- Cappell, H., & Greeley, J. (1987).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An update on research and theory. In H. T. Blane & K. 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pp. 15-54). New York: Guilford Press.
- Cliff, N. (1983). Some caut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causal mode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8, 115-126.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 George, W. H.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218-230.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ox, M., & K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M. Cox (Ed.), *Why people drink*(pp. 291-311). New York: Gardner Press.
- Cutter, H. S. G., & O'Farrell, T. J. (1984). Relationships between reasons for drinking and customary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321-325.
- Dawson, D. A., Grant, B. F., & Harford, T. C. (1995). Variation in the association of alcohol consumption with five DSM-IV alcohol problem domai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 66-74.
-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186-193.
- Farbor, P. D., Khavari, K. A.,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

- 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 Higuchi, S., Parrish, K. M., Dufour, M. C., Towle, L. H., & Harford, T. C. (1994). Relationships between age and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among Japanese, Japanese-Americans, and Caucasian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8, 305-310.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Windows LISREL 8.12a*.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itchens, J. M. (1994). Does this patient have an alcohol problem?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782-1787.
- McCarty, D., & Kaye, M. (1984). Reasons for drinking: Motivational pattern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9, 185-188.
- Midanik, L. T., & Clark, W. B. (1995). Drinking-related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Description and trends, 1984-1990.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395-402.
- Oretting, E. R., & Beauvais, F. (1990). Adolescent drug use: Findings of national and local surve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385-394.
- Schukit, M. A., Anthenelli, R. M., Bucholz, K. K., Hesselbrock, V. M., & Tipp, J. (1995). The time course of development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men and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18-225.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Haeng-Woo Shi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in general population. In the first place, the present study tested a four-factor model of drinking motives recently proposed by Cox and Klinger(1988, 1990).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dicated that the correlated four-factor model fit the data significantly better than did any of several plausible alternative models.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es on drinking problems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drinking motive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lcohol use and drinking problems. Coping motives, for example, influenced upon drinking problem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alcohol use, while social motives had only indirect(mediating) influence on drinking problems. It was particularly noted that coping motives were the strongest predictor in explaining the behaviora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present study could work as a stepping stone for guiding the directions of further research.